

제 14 호

복토크 툽!툽!툽!

발행일 : 2015.07.03

발행인 : 복토크툽

♣ 14호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 1면 - 4면 : 4학년 1학기 사회 교과관련도서목록
- 5면 - 인물책 서평 : 로봇박사 데니스 흥
- 6면 - 인물책 서평 : 찰리는 영화감독 채플린이 될거예요.
- 7면 - 한국고전 : 토끼전
- 8면 - 외국고전 : 지킬박사와 하이드씨



* 이번호부터는 교과관련도서목록에 전집과 단행본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단원의 순서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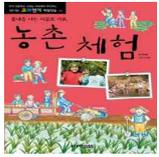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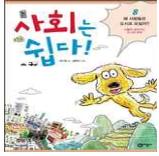
교과서와 함께 읽어요

- 4학년 1학기 사회 관련도서 : 전집 -

| 책정보 | | 관련 단원 | |
|-----|------------------------------|-----------------------------------------------------------------------------------------------------------------------------|--------------------------------------|
| | 눈으로 보는 우리나라 /교원 ALL STORY | 13. 농촌, 여촌, 산지촌이 다르다고? | 1단원 촌락의 형성과 주민 생활 |
| | 교과서에 나오는 사회탐구 /한국헤밍웨이 | 9. 산 따라 강 따라 14. 우리 마을 작은 이장님 15. 끼퉁끼퉁 깎깎이와 영명 진묘이 16. 산에 사는 메아리 | 1단원 촌락의 형성과 주민 생활 |
| | 교과서 으뜸 사회 탐구 /한국헤르만헤세 | 4. 지도의 비밀을 풀어라 5. 구석구석 우리 땅 이야기 7. 우리 마을 작은 이장님 8. 깎깎이와 진묘이의 여촌 이야기 9. 산물 이야기메리와 도시 이야기이름이 10. 산마을 강마을 우리 마을 | 1단원 촌락의 형성과 주민 생활 |
| | 눈으로 보는 정치 경제 /교원 | 1. 정치란 무엇인가? 3. 시장, 도지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6. 정치참여는 어떻게 할까? 23. 촌락과 도시는 어떻게 다를까? | 1단원 촌락의 형성과 주민 생활 3단원 민주주의와 지방 자치 |
| | 굿모닝 사회탐구 /한국슈바이처 | 51. 농촌이 변하고 있어요 52. 우리 마을로 놀러 오세요 53. 갯벌 여행을 다녀왔어요 | 1단원 촌락의 형성과 주민 생활 |

교과서와 함께 읽어요

- 4학년 1학기 사회 관련도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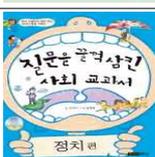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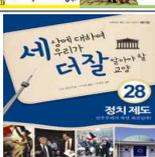
| 책 정보 | | 관련 단원 |
|-------------------------------------------------------------------------------------|------------------------------------------------------------------------------------------------------------------------------------|-------------------------------------|
|  | 2.하늘이의 시골 일기 3.바다가 준 선물 4.산골 마을 외갓집에 46.법이 생긴 원숭이 마을 47.열두살 윤자, 국회에 가다 51.우리 지역의 일은 우리가 52.민주의 첫 선거 53.4월의 친구 | 1단원 촌락의 형성과 주민 생활 3단원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
|  | 일과 사람 5: 영차 영차 그물을 올려라 일과 사람 7: 노야네 목장은 맨날 바빠 일과 사람 9: 나는 농부란다 (백남호 외 지음/사계절/2012) | 1단원 촌락의 형성과 주민 생활 |
|  | 신나는 교과연계 체험학습 29 농촌체험: 흙내음 나는 시골로 가요 (최아람 글/노서연 그림/주니어김영사/2012) | 1단원 촌락의 형성과 주민 생활 |
|  | 손에 잡히는 사회 교과서 17 : 도시와 촌락 (김동찬, 최윤선 글/김유재홍 그림 /길벗스쿨/2010) | 1단원 촌락의 형성과 주민 생활 2단원 달라지는 생활모습 |
|  | (사회시간이 즐거워지는)대한민국 도시탐험 한희주 지음/황정하 그림/아이세움/2012 | 2단원 달라지는 생활모습 |
|  | 사회는 쉽다 8 : 왜 사람들은 도시로 모일까? (유다정 글/ 김령연 그림/ 비룡소/2015) | 2단원 달라지는 생활모습 |
|  | 도시 이야기 33가지 :초등학생이 꼭 알아야 할 필수지식 삼상시리즈 18 (박경;방원일 글/ 싹팍 그림/을파소/2010) | 2단원 달라지는 생활모습 |
|  | 도시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세계도시 대탐험 (상드린 세종,브뤼노 골드만 글/이효숙 역 /초록개구리/2009) | 2단원 달라지는 생활모습 |
|  | 어떻게 도시를 건설할까? : 호기심도서관 28 도린 바르베 글/뤽 파브로 그림/장석훈 역 /비룡소/2008) | 2단원 달라지는 생활모습 |

교과서와 함께 읽어요

| 책 정보 (단행본) | | 관련 단원 |
|-------------------------------------------------------------------------------------|-----------------------------------------------------------------------|----------------|
|  | 모두가 아픈 도시 :환경 탐정단 미스터리를 파헤쳐라 (백은하/최형미 글/김종민 그림 /뜨인돌어린이/2013) | 2단원 달라지는 생활모습 |
|  | 누가 세상을 움직이는가? (앤드루 마 지음/고정아 옮김/비룡소/2010) | 3단원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
|  | 좋은 정치란 어떤 것일까요? (김준형 지음/박준형 그림 /어린이생각나무/2012) | 3단원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
|  | 10대와 만나는 정치와 민주주의 (고성국 지음/김영민 그림 /철수와영희/2011) | 3단원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
|  | 정정당당 해치의 그랄지! 정치 (황지운 지음/성낙진 그림/상상의집/2012) | 3단원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
|  | 신기루 도시의 정치를 구하라 (황근기 글/이정근 그림/초록우체통/2012) | 3단원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
|  | 어린이를 위한 정치란 무엇인가? (이은재 글/김지안 그림 /주니어김영사/2012) | 3단원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
|  | 꼬불꼬불 나라의 정치이야기 (서해경, 이소영 글/정우열 그림 /풀빛미디어/2012) | 3단원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
|  | 정치야 정치야 나 좀 도와줘 (박신식 글/이한울 그림/삼성당/2010) | 3단원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
|  | 공부가 되는 사회 1 : 정치와 법 (조한서 지음/아름다운사람들/2015) | 3단원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

교과서와 함께 읽어요

-4학년 1학기 사회 관련도서-

| 책 정보 (단행본) | | 관련 단원(학년-학기-단원명 순) | |
|-------------------------------------------------------------------------------------|-----------------------------------------------------------------------------------|----------------------------------------------------------------------------------------------------------------------------|----------------|
|  | 좌충우돌 선거운동 (최형미 글/지영이 그림/한림/2012) | 3단원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 |
|  | 초등학생이 꼭 알아야 할 정치이야기 33가지 (류은정 글/쌈팍 그림/을파소/2009) | 3단원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 |
|  | 초등 정치 생생 교과서 (지호진 글/김미정 그림/스콜라/2007) | 3단원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 |
|  | 그래서 이런 정치가 생겼대요 (우리누리 지음/김경호 그림 /길벗스쿨/2012) | 3단원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 |
|  | 질문을 골라 삼킨 사회교과서 6 : 정치편 (조선미 글/송향란 그림/주니어중앙/2010) | 3단원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 |
|  | 사회는 쉽다 1:왕 총리 대통령 중 누가 가장 높을까? 사회는 쉽다 7:마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홍경의 외 글/비룡소/2014) | 3단원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 |
|  |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28 : 민주주의가 과연 최선일까? (스콧 위트머 지음/이지민 옮김 /내인생의책/2013) | 3단원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 |
|  | 대통령님 무슨 일 하세요? (서찬석 글/박경민 그림/을파소/2013) | 3단원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 |
|  | 솔루토이 사회탐구/ 교원 All story | 21. 정치와 민주주의 테르마을에서 생긴 일 23. 국민의 정치참여 고라니 마을의 대장선거 26. 지방자치 아이들이 만든 도서관 27. 여러 가지 정치제도 말괄량이 신디 공주의 여행 | 3단원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
|  | 교과서가 쉬워지는 용어 사회 400 1-4 (루비교육연구회 지음/아이세움/2014) | 전단원 공통 | |



로봇과 인간의 아름다운 공존과 따뜻한 기술을 고민하는 로봇 과학자. 미국 위스콘신 매디슨 대학교, 인디애나 퍼듀 대학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2004년 버지니아 공대에 로봇 연구소 ‘로멜라(RoMeLa)’를 만들었다. 현재는 캘리포니아 UCLA 기계항공공학과 교수로 일하면서, 새로운 로보틱스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있다. 데니스 홍 박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시각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는 《워싱턴 포스트》에 ‘달 착륙에 버금가는 성과’라고 소개되기도 했다. 이런 성과로 미 국립과학재단의 ‘젊은 과학자상’, ‘GM 젊은 연구자상’,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교육상’ 등을 수상했다. 전 세계에 교육·연구용으로 모든 소스를 공개한 ‘다윈-OP’를 비롯해, 생명을 구하는 화재 진압·재난 구조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며 어린 시절부터 결심했던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사람을 돕는 따뜻한 로봇을 만드는 행복한 로봇 박사

(로봇박사 데니스 홍의 꿈 설계도:로봇으로 세상을 바꾼 과학자의 꿈 일기/
데니스 홍 글/ 유준재 그림/ 샘터 /2014)
서울신현초등학교 사서교사 백지혜

《로봇 박사 데니스 홍의 꿈 설계도》는 호기심 많고 개구쟁이였던 소년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로봇 과학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어린시절 스타워즈를 보고 막연히 꿈 꿔왔던 로봇박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의 목표와 꿈을 찾아가는 데니스 홍의 이야기이다.

“사람을 돕는 따뜻한 로봇을 만들고 싶다는 어린 날의 꿈을 선명하게 일깨워 주었다. 이 로봇이 누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로봇 하나하나를 만들 때마다 나는 이런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 자신의 능력을 개인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데니스 홍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 있는 말이다. 세계 최초로 시각 장애인용 자동차를 개발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그의 꿈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닐까.

또 어렵게 만든 기술이지만 다함께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인간을 닮은 인공지능을 갖춘 ‘다윈-OP’ 로봇을 교육 연구용으로 모든 소스를 공개하기도 하였다. 소스를 공개한지 1년도 되지 않아 300여 대가 넘는 다윈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으며 이전보다 자유롭게 휴머노이드를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로봇 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의 꿈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꿈을 꾸고 꿈을 찾으려 노력한다. 꿈을 찾아 가는 과정에서 나를 위한 꿈을 꾸기 보다는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의 철학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꿈을 향해 노력해 나간다면 개인의 성취가 곧 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이라면 이 책을 통해 커서 무엇이 될까? 보다 어떤 사람이 될까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1. 사람을 돕는 따뜻한 로봇을 만든다면 어떤 로봇을 만들고 싶은가?
2. 나의 꿈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 |
|--------------------------------------------|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
| 로봇 다빈치 꿈을 설계하다/데니스 홍/샘터/2013 |
| 1:100 로봇 오준호 박사/오준호, 서지원 글/김세중 그림/스콜라/2013 |



1889년 4월 16일 (영국) ~ 1977년 12월 25일 (향년 88세)
영국의 희극배우·영화감독·제작자. 1914년 첫 영화를 발표한 이래 《황금광 시대》, 《모던 타임스》, 《위대한 독재자》 등 무성 영화와 유성영화를 넘나들며 위대한 대작을 만들어냈다. 콧수염과 모닝코트 등의 이미지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으며 1975년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작위를 받았다.

- 두산백과사전



기쁨과 슬픔, 인생을 연기해요.

(찰리는 영화감독 채플린이 될 거예요 / 베르나르 상바즈 글/ 페프 그림/ 책빛 /2014)
송곡초등학교 사서교사 유승희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작은 키에 지나치게 큰 구두와 바지, 콧수염, 그리고 중산모! 어딘가 모자라 보이는 모습. 찰리 채플린이다. <어린이는 어른이 된다> 시리즈의 두 번째 책 <찰리는 영화감독 채플린이 될 거예요>는 무성영화의 대부 찰리 채플린의 일생을 저학년용으로 간추려 놓은 책이다.

찰리는 유명 배우 부모 밑에서 많은 끼를 물려받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고, 한 때 유명했던 어머니는 목소리를 잃고 정신병자가 되었다. 찰리는 배고픈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제대로 학교도 다닐 수 없었다. 마임, 연기, 춤 등 다양한 끼를 갖고 있던 그는 8살부터 극장 무대에 섰다. 찰리는 온갖 허드렛일을 했지만 무대를 떠나지 않았고 14살에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극단에 들어가면서 그의 재능은 빛을 발하게 된다. 그리고 미국으로 이동해 위대한 독재자, 모던타임즈, 황금광 시대 등 지금까지 유명한 수많은 영화를 남기며 전 세계가 사랑하는 희극인으로 그 이름을 남겼다.

그의 영화에는 비극과 희극이 교차하는 우리 삶이 있다. 또 가난한 사람에 대한 연민이 있고, 사회 제도적 모순에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사람은 경험한 만큼 생각한다고, 그가 배고프고 절망적이었던 어렸을 적 상황이 없었다면 슬픔과 기쁨을 모두 담아낼 수 있는 예술가가 될 수 있었을까? 힘든 상황에도 열심히 자신이 잘 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을 했던 채플린의 이야기는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학생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

달빛 아래 마임을 하는 찰리 채플린이 그려진 표지를 포함해 검은색이 주를 이루는 삽화는 그의 무성영화를 보는 듯하다. 저학년 대상의 도서인 탓에 내용이 많이 생략되었고, 유명한 영화의 상세한 정보 부족에 아쉬움이 남지만, 이 책을 읽고 어린 시절의 여러 어려움 경험이 내 성장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느낀다면 찰리 채플린을 제대로 만난 것이다.

읽기 포인트

1. 내가 채플린이었다면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 그리고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최고의 희극인으로 뽑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의 영화를 보며 함께 이야기하기
2. 찰리 채플린을 주제로 한 다른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과 비교해서 읽으면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방송과 영화의 탄생: 호기심도서관 15 / 오딜 리무쟁 글/ 프랑수아 뱅상 그림/ 비룡소

찰리 채플린: 역사를 만든 사람들13 / 브리지트 라베, 미셸뤼예크 글 / 다섯수레



**한국고전
- 토끼전**

작자, 연대 미상의 고전소설. 조선 후기의 판소리계 작품으로 동물을 의인화한 우화소설이다. 원래 《삼국사기》 김유신열전 등의 문헌에 실린 '구토 설화'에서 유래되어 판소리로 불리다가, 조선 후기에 소설로 기록되었다. 동해 용왕의 딸이 병이 들자, 신하인 거북이 토끼의 간을 구한다는 짤막한 이야기인 구토 설화는 조선 후기에 들어서 결말이 다른 이야기가 120여 개가 넘을 정도로 다양한 판소리와 소설로 만들어졌다.

현재 이 이야기는 한글 또는 한글과 한문 혼용으로 된 책이 34종, 손으로 쓴 한문책이 4종 등 여러 책이 전하고 있다. 책의 종류가 많은 만큼 제목 또한 《별주부전》, 《토생원전》, 《토의 간》 등 다양하다.

| 출판사별 | 출판사별 책의 특징 | |
|-------------------------|-----------------------------------------------------------------------------------------------------------------------------------------------------------------------------------------------------------------------------------------------------------------------------------------------------------------------------------------------------------------------------------------------------------------------------------|-----------------------------------------------------------------------------------------------------------------------------------------------------------------------------------------------------------------------------------------|
| | <p>김지윤 글 박연우 그림 두산동아</p> | <p>이 책은 소설판각본 퇴별가를 쉽게 풀어 쓴 것으로 70가지 전해 내려오는 토끼전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다.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되어 있고 운율이 있어 읽기에 지루함이 전혀 없다. 책의 뒷편에 수궁가, 토공전을 비교하여 놓은 자료를 살펴보면 이 이야기를 더욱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p> |
| | <p>서정오 글 송희진 그림 현암사</p> | <p>우리 옛이야기 살리기에 힘쓰시는 서정오 선생님이 판소리 사설<수궁가>를 기본으로 하여 고전소설 <토끼전>, <토공전>을 참고로 쓰신 풍자의 맛을 잘 살린 작품이다. 서정오 선생님의 특유의 말마디가 짧고 깔끔한 느낌이 드는 이야기체로 되어 있어서 본이 되는 글과는 다소의 글맛의 차이는 있지만 옛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들에게는 쉽게 술술 편안하게 읽히는 장점이 있다.</p> |
| | <p>김진경 글 강우근 그림 황제평권</p> | <p>황제평권의 토끼전은 원판본 '퇴별가'를 원본으로 한 그림책이다. 저학년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꾸며주며 작품의 마지막에 열린 구성으로 뒷이야기를 상상하게 하는 점이 특이하다. 그림은 민화기법으로 그려 이야기와 잘 어울리며, 책의 마지막에 토끼전 해설이 있어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p> |
| | <p>장주식 글 한겨레아이드</p> | <p>한겨레 옛이야기 28번째 책으로, 초등학교 중학년 어린이들도 읽기 편하도록 쉬운 말로 풀어 놓았다. 약간은 옛스러우면서도 친근한 삽화가 고전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 줄 수 있을 것 같다. 중간 중간 판소리의 한 대목을 보는 듯 한 노래 구절을 큰 소리로 불러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 하지만 여러 다양한 토끼전 중 어떤 판본을 기준으로 하였는지 나타나 있지 않아 조금 아쉽다.</p> |
| | <p>이혜숙 글 김성민 그림 창비</p> | <p>창비의 '재미있다! 우리 고전' 첫 번째 책으로, 대부분의 줄거리는 <토공전>을 따르고 있다. 판소리계 소설의 장점인 구연하기 좋게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렸다. 우화 소설 특유의 재치와 해학이 잘 묻어나 있으며, 이야기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어휘도 이해하기 쉬워 중학년이 읽기에도 부담이 없다.</p> |
| <p>토끼전과 별주부전</p> | <p>자라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어가면 '충(忠)'이라는 봉건 시대의 전통 윤리를 강조하게 되고 토끼가 중심이 되면 정치 풍자나 지배 권력에 대한 비판과 저항 정신이 나타나게 된다.</p> | |
| <p>토끼전 줄거리</p> | <p>- 창비 '재미있다 우리고전' 중 토끼전 작품 해설에서 발췌 용왕이 병이 나자 도사가 나타나 육지에 있는 토끼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고 한다. 용왕은 수궁의 대신을 모아놓고 육지에 나갈 신하를 고르는데 다투기만 할 뿐 결정을 하지 못한다. 이 때 별주부 자라가 나타나 자원하여 허락을 받는다. 토끼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가지고 육지에 이른 자라는 동물들의 모임에서 토끼를 만나 수궁에 가면 높은 벼슬을 준다고 유혹한다. 이에 속은 토끼는 자라를 따라 용궁에 이른다. 간을 내라는 용왕 앞에서 속은 것을 안 토끼는 꾀를 내어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고 한다. 자라와 함께 육지에 이른 토끼는 어떻게 간을 내놓고 다니느냐고 자라에게 욕을 하면서 숲 속으로 도망가 버린다. 어이 없는 자라는 육지에서 죽거나 빈손으로 수궁으로 돌아간다.</p> | |



**외국고전
- 지킬박사와
하이드**

『지킬박사와 하이드』는 ‘자기 본신과의 만남’이라는 고전적인 주제를 새롭게 변주하여 환상문학의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받는 작품이다. 뿐만 아니라 제목 ‘지킬박사와 하이드’는 인간의 이중 인격을 나타내는 대명사로 자리 잡았을 만큼 현대인들의 성격 분열에 대한 묘사가 치밀하고 탁월하다는 찬사를 받고 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의 본성에 선과 악이 한데 섞여 있다고 여겼으며 바로 거기서 인간의 개인적인 고통은 물론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비롯된다고 보았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선과 악 그 자체의 분열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한 충동이 실제로는 얼마만한 크기로 존재했든 간에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견줄 수 없이 커진다는 사실을 전하고자 한다.

- 푸른숲 징검다리 클래식 작품해설 요약 발췌-

출판사별

출판사별 책의 특징

| | | |
|--|---------------------------|---------------------------------------------------------------------------------------------------------------------------------------------------------------------------------------------------------------------------------------------------------|
| | <p>박연주 옮김 주니어 파랑새</p> | <p>세계 명작을 그림책으로 출판한 주니어 파랑새의 세계 명작 그림책 시리즈 중 하나이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명작을 읽을 때 배경지식이나 상상력이 부족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 책에서는 삽화로 해결한다. 으스스한 분위기의 삽화로 더욱 긴장감을 더하여 준다. 원본의 지루한 감을 적당히 줄여 초등학교생이 읽기에 적합하다. 그러나 저학년 학생에게는 조금 어렵다.</p> |
| | <p>이규희 옮김 지경사</p> | <p>삽화는 약간 조악하다는 느낌이 들지만 그에 비해 원작의 내용은 잘 살려 구성하였다. <논술대비 세계명작>이라는 시리즈명처럼 어린이들이 책을 읽은 후 사지선다형의 문제로 책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거나, 여러 명이 함께 토론할 만한 주제를 선정해 실어 놓은 점이 눈에 띈다.</p> |
| | <p>박광규 옮김 비룡소</p> | <p>비룡소 클래식 시리즈 33권이다. 본 모임에서 원전에 가까운 책으로 읽은 펭귄 클래식 시리즈와 흡사하게 내용구성이 이루어져 있다. 삽화도 미국의 대표 일러스트레이터 데이비드 월슨이 그려 판화와 같은 느낌으로 작품의 내용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p> |
| | <p>이미애 옮김 푸른숲 주니어</p> | <p>아무리 훌륭한 고전이라도 독자가 읽고 소화할 수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작품이 본디 지닌 맛과 재미는 살리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다듬어 놓은 'Usborne Classics'을 원전으로 삼아 기획된 세계 명작 시리즈 중 하나다. 본문 뒤에는 현직 국어교사가 직접 쓴 작가나 작품에 대한 설명, 그 작품들이 지니고 있는 현재적 의미까지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p> |
| | <p>한상남 옮김 삼성출판사</p> | <p>문학의 탐정 세계명작 시리즈의 한 편으로 원전에 비해 줄거리가 축약되기는 했지만 읽기 쉽게 번역되어 있다. 삽화는 책의 내용에 편견을 갖고 읽거나 읽기를 꺼리게 될 정도로 섬뜩하고 괴기스럽다. 부록으로 작가소개, 줄거리요약, 작품이해하기가 있어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논제를 제시하여 작품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구성 되어 있다.</p> |

작가소개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1850년 영국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 밖에서 노는 것보다 책 읽는 것을 좋아했다.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하다 마음을 바꿔 법학을 전공하였다. 남부럽지 않게 반듯하게 자라던 스티븐슨은 이런 분위기에 반감을 갖고 방탕한 생활을 하며 방황 중에는 프랑스로 여행을 다니기도 했다. 이 여행을 통해 얻은 경험으로 『보물섬』 등 다수의 여행기를 집필, 많은 사랑을 받아오다 1886년 이 작품을 발표하였다. 그 이후에도 그는 인간의 자아분열과 이중성을 다룬 작품을 꾸준히 발표하였다. 말년에 남태평양의 여러 섬을 여행하다 1889년부터 사모아 섬에 정착하여 살았는데 『허미스트의 웨어』 집필 도중 1894년 마흔 네 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 푸른숲 징검다리 클래식 작품해설 요약 발췌-

**지킬 박사와 하이드
줄거리**

19세기 영국, 어터슨은 런던중심가를 산책하다가 이상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어터슨은 이 사건이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고객인 헨리 지킬과 관계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그를 쫓는다. 또 몇 건의 공포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고 끝내 어터슨은 끔찍스러운 사건의 전말을 알게된다. 하이드는 지킬이 창조한 존재이다. 지킬박사는 선과 악이 섞여있는 존재라면 하이드는 그에게서 뺀 순전한 악만을 가진 존재이다. 처음에는 지킬에서 하이드로, 하이드에서 지킬로 변하는 것이 쉬웠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킬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는 점점 어려워진다. 이를 알게 된 지킬은 하이드로서 살아가야 할 방법들을 강구하며 주변을 정리하지만 끝내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만다.

북토크톡은 서울초등학교 사서교사 8명의 연구모임입니다

♣책의 표지 그림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 ♣다음 호는 9월에 발간됩니다.